

# 금란청년 매일 주와 함께

2013 3월  
March  
DAILY WITH GOD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 요한복음 14:21

I LOVE **KUMNAN**  
**YOUTH**

표지디자인 : 김완석

마가복음 1 ~ 6장

☎금란청년회

금란청년

“매일 주와 함께”

Daily With God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시편119:9)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way pure?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Psalms119:9)

본 권은 일일 말씀 묵상과 주일 속회 모임 교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일일 말씀 묵상 활용방법

- ① Commentary 항목은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석 및 묵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Application 항목은 본문 말씀에 대한 말씀 묵상 및 적용 내용을 기록한다.

#### 2.주일 속회 모임 교재 활용방법

- ① 속별 모임은 아이스 브레이크(Ice Break)와 영성 G.B.S 로 구성되어 있어, 속장을 중심으로 속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진행한다.
- ② 나눔팀별 모임은 한주간 삶 나누기, 신앙고백 문답 그리고 영성 G.B.S 때 작성한 적용 내용과 기도제목들을 나눔팀장을 중심으로 서로 나누는 ‘Sharing 중심의 모임’ 으로 진행한다.

## 1. 우리 교회 기도제목

- 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미래, 안보, 안정, 경제를 위하여)
- ② 감독님 국내외 집회와 건강을 위하여
- ③ 담임목사님 맡겨진 사명과 건강을 위하여
- ④ 세계선교와 2020 군복음화와 군목님들을 위하여  
(우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하여)
- ⑤ 교회부흥과 금년도 목표를 위하여(130,000명)  
한 속회 1명씩 더 참석을 위하여(2300속 속회 부흥)
- ⑥ 기독교 준비와 설립을 위하여
- ⑦ 우리교회 영적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기 위하여

## 2. 청년회 연합 기도제목

- ① 사랑을 고백하며 나누는 청년 신앙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 ② 청년회 담당전도사와 개체청년회 임원들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 ③ 청년회 부흥1000명, 선교1000명을 통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청년회 6개월~1년 해외단기선교 헌신자 파송과 준비를 위하여)
- ④ 청년회 토요예배와 주일속회모임의 부흥을 위하여
- ⑤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군대, 유학간 청년들을 위하여
- ⑥ 올해 등반한 신입청년들과 새가족들이 믿음으로 청년회에 잘 정착하기 위하여
- ⑦ 청년들의 인가 귀도와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 ⑧ 청년회 1차 총동원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4.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5.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1. Psalm 34 Of David. When he pretended to be insane before Abimelech, who drove him away, and he left. I will extol the LORD at all times; his praise will always be on my lips.

2. My soul will boast in the LORD; let the afflicted hear and rejoice.

3. Glorify the LORD with me; let us exalt his name together.

4. I sought the LORD, and he answered me; he delivered me from all my fears.

5. Those who look to him are radiant; their faces are never covered with shame.

## Commentary

시편은 글 쓴 사람의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기록해 놓은 찬송시이자, 기도문입니다.

설명 없이도 스스로 목상이 가능하기에 별도의 Commentary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본문을 읽고 아래의 물음을 통해 스스로 Commentary를 작성 한 후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십시오.

①시편 기자는 지금 어떠한 상황과 심정에서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②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간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4,6절)

③시편 기자가 지금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6.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 여호와와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8.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 This poor man called, and the LORD heard him; he saved him out of all his troubles.

7. The angel of the LORD encamps around those who fear him, and he delivers them.

8.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blessed is the man who takes refuge in him.

9. Fear the LORD, you his saints, for those who fear him lack nothing.

10. The lions may grow weak and hungry, but those who seek the LORD lack no good thing.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1. 너희 자녀들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  
로다

12.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  
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13.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  
서 금할지어다

14.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지어다

15.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6.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시는도다

11. Come, my children, listen to me; I will teach  
you the fear of the LORD.

12. Whoever of you loves life and desires to see  
many good days,

13. keep your tongue from evil and your lips from  
speaking lies.

14. Turn from evil and do good; seek peace and  
pursue it.

15. The eyes of the LORD are on the righteous and  
his ears are attentive to their cry;

16. the face of the LORD is against those who do  
evil, to cut off the memory of them from the earth.

## Commentary

시편은 글 쓴 사람의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기록해 놓은 찬송시이자, 기도문입니다.

설령 없어도 스스로 목상이 가능하기에 별도의 Commentary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본문을 읽고 아래의 물음을 통해 스스로 Commentary를 작성 한 후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십시오.

①시편 기자는 무엇을 버리고 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13절)

②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눈과 얼굴과 귀 그리고 마음이 각각 무엇을 보고 듣고 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③시편 기자가 지금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금란청년 매일 주와 함께 (Daily With God)

17. 의인이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도다

19.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21.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22.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17. The righteous cry out, and the LORD hears them; he delivers them from all their troubles.

18. The LORD is close to the brokenhearted and saves those who are crushed in spirit.

19. A righteous man may have many troubles, but the LORD delivers him from them all;

20. he protects all his bones, not one of them will be broken.

21. Evil will slay the wicked; the foes of the righteous will be condemned.

22. The LORD redeems his servants; no one will be condemned who takes refuge in him.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 1. 속별 모임 :

### (1) 아이스 브레이크(Ice Break)

속회원들과 함께 서로 어색한 분위기(Ice)를 깨뜨리기(Break) 위해 간단한 게임을 합니다.

### (2) 영성 G.B.S

#### 제9과 성령의 인격성

암송구절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14:26)

#### 가. 본문 이해

본문은 성령의 독특한 이름과 오시는 경위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밝혀 줍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는 신앙 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 ① 보혜사 곧 성령이란?

보혜사란 요한복음의 특수 용어로 도움을 받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자란 뜻으로 위로자(14:16), 대언자, 중보자(요일2:1)의 일을 뜻합니다. 또한 성령은 거룩한 분이므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의 한 분이십니다.

##### ② 성령은 누가 보냅니까?

성부께서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마치 성자가 성부의 이름으로 오심과 같습니다(5:43,10:25). 성자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성령이 성자를 대신함을 뜻합니다(14:13). 이렇게 오신 성령은 인간의 연약자를 도와 주십니다(롬8:26).

##### ③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목적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16:13,14). 둘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망각하기 쉬운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됨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물론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있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 복습 질문** (각자 본문 이해 내용을 토대로 요약하여 자필로 작성한 후, 몇 사람만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

- ① 보혜사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② 성령을 누가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십니까?
- ③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④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 말해보십시오.

**다. 적용**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체적인 적용 실천 사항을 각자 적어봅시다.

## 2. 나눔팀별 모임

### (1) 한 주간 삶 나누기

### (2) 신앙고백 문답

- ①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 ②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 ③ 지난 한 주간 나 자신은 어떤 아는 죄들을 범했으며,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 ④ 죄를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음을 믿습니까?

“주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 적용과 기도제목 나누기 (영성 G.B.S 시간에 적용란에 적은 내용과 기도제목을 서로 나누기)

& 팀원들의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2.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1.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2. It is written in Isaiah the prophet: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you, who will prepare your way" --
3.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paths for him.'"
4. And so John came, baptizing in the desert region and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 Commentary

- ①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서론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과는 달리 본서는 1절에서만 본서의 내용을 규명한 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비록 서론은 1절에 불과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은 비단 마가복음서 시작의 기초석이 될 뿐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초석도 되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의 신앙과 헌신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② 본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나 족보를 생략한 채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해서 곧바로 언급하고 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위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다.
- ③ 나의 신앙과 헌신의 시작이 되는 기초석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가? 혹은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5.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6.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7.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5. The whole Judean countryside and all the people of Jerusalem went out to him. Confessing their sins, they were baptized by him in the Jordan River.

6. John wore clothing made of camel's hair, with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and he ate locusts and wild honey.

7. And this was his message: "After me will come one more powerful than I, the thongs of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stoop down and untie.

8. I baptize you with water, but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 3월 5일 화요일 : 마가복음 1장 9절~13절

9.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0.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9. At that time Jesus came from Nazareth in Galilee and was baptized by John in the Jordan.

10. As Jesus was coming up out of the water, he saw heaven being torn open and the Spirit descending on him like a dove.

11.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well pleased."

### Commentary

①세례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태어난 자신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사람들의 이목 밖으로 점점 사라져 간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서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본이 되어 주셨으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고 온 인류를 향한 구속사역의 첫 발을 내딛게 되신 것이다.

②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에서 사십일간 금식 기도로 준비하셨으며, 그 때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들을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다.

③세례요한은 그의 사명을 다하고 겸손히 사라져갔으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본이 되어 주셨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겸손과 섬김보다는 교만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12.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12. At once the Spirit sent him out into the desert,

13. and he was in the desert forty days, being tempted by Satan. He was with the wild animals, and angels attended him.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6.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4. After John was put in prison, Jesus went into Galilee,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God.

15.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16. As Jesus walked beside the Sea of Galilee, he saw Simon and his brother Andrew casting a net into the lake, for they were fishermen.

17.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 Commentary

①예수님은 회개의 복음, 하나님 나라(천국)의 복음을 먼저 전파하셨다.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먼저 회개의 마음을 갖어야 할 것이다.

②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무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자들을 자신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부족하고 천한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도록 하신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로 부르신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이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의 뒤를 쫓았다.

③베드로는 가족과 생업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정말로 그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겠는가?

18.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19.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 물을 깎는데

20.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18. At once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19. When he had gone a little farther, he saw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in a boat, preparing their nets.

20. Without delay he called them, and they left their father Zebedee in the boat with the hired men and followed him.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21.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2.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23.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24.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21. They went to Capernaum, and when the Sabbath came, Jesus went into the synagogue and began to teach.

22. The people were amazed at his teaching, because he taught them as one who had authority, not as the teachers of the law.

23. Just then a man in their synagogue who was possessed by an evil spirit cried out,

24. "What do you want with us, Jesus of Nazareth? Have you come to destroy us? I know who you are -- the Holy One of God!"

## Commentary

①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 주신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때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되었다. 왜냐하면, 당시 회당에서 가르치던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있고 능력이 있는 교훈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말 뿐이었던 당시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회당에 있던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서 자신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다.

②당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놀라며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

③지금 내가 놀라고 있는 관심의 대상은 무엇인가? 세상 일들과 주변 사람들의 소식들로 인해서 놀라고, 그것들에 오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인해 놀라본 적이 있는가?

25.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8.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25. "Be quiet!" said Jesus sternly. "Come out of him!"

26. The evil spirit shook the man violently and came out of him with a shriek.

27. The people were all so amazed that they asked each other, "What is this? A new teaching -- and with authority! He even gives orders to evil spirits and they obey him."

28. News about him spread quickly over the whole region of Galilee.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29.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0.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31.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32.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4.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29. As soon as they left the synagogue, they went with James and John to the home of Simon and Andrew.

30. Simon's mother-in-law was in bed with a fever, and they told Jesus about her.

31. So he went to her, took her hand and helped her up. The fever left her and she began to wait on them.

32. That evening after sunset the people brought to Jesus all the sick and demon-possessed.

33. The whole town gathered at the door,

34. and Jesus healed many who had various diseases. He also drove out many demons, but he would not let the demons speak because they knew who he was.

## Commentary

①본문의 내용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치심(29~31절), 각종 병자들과 귀신들린 자들을 고치심(32~34절), 예수님의 기도생활과 전도(35~39절)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본문에 나타난 치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간들의 육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동시에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②예수님은 친히 기도와 전도의 본을 보여 주셨다.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신 것과 각 마을을 다니시며 전도하신 그 모습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모습들이다.

③예수님은 육신과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또한 해결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할 문제들은 무엇인가? 나의 기도제목들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35.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6.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35. Very early in the morning, while it was still dark, Jesus got up, left the house and went off to a solitary place, where he prayed.

36. Simon and his companions went to look for him,

37. and when they found him, they exclaimed: "Everyone is looking for you!"

38. Jesus replied, "Let us go somewhere else -- to the nearby villages -- so I can preach there also. That is why I have come."

39. So he traveled throughout Galilee, preaching in their synagogues and driving out demons.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40.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대

41.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2.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40. A man with leprosy came to him and begged him on his knees,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41. Filled with compassion,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 am willing," he said. "Be clean!"

42. Immediately the leprosy left him and he was cured.

## Commentary

①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환자(문둥병자)가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자세와 주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도 정녕 하나님께서는 겸손하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②문둥병자는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 뜻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예수님께 간구를 하였으며, 결국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

당신에게는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그 간구의 소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소원은 아닌가? 또한, 응답이 더디다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43.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4.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45.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43. Jesus sent him away at once with a strong warning:

44. "See that you don't tell this to anyone. But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offer the sacrifices that Moses commanded for your cleansing, as a testimony to them."

45. Instead he went out and began to talk freely, spreading the news. As a result, Jesus could no longer enter a town openly but stayed outside in lonely places. Yet the people still came to him from everywhere.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 1. 속별 모임 :

### (1) 아이스 브레이크(Ice Break)

속회원들과 함께 서로 어색한 분위기(Ice)를 깨뜨리기(Break) 위해 간단한 게임을 합니다.

### (2) 영성 G.B.S

#### 제10과 성령의 내주

암송구절 :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전 3:16)

#### 가. 본문 이해

성경의 일관된 책망들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① 성도들을 질책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본서에서는 꼭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함에 대하여 여러 차례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 절에서 지혜로운 건축자(10절)와 티에 대해 말하였는데(11절) 불로 심판한다는 심각성을 말하면서(13절) 불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왜 알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스스로를 생각게 하고 있습니다.

#### ②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a. 성도는 개개인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하나의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성도 된 자는 개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각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영적 성전입니다.

b.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함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도에게는 성령 뿐 아니라 성삼위께서 내주하십니다(요14:17,23). 특히 성령의 거하심은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고 성화케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경의 책망에 예민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 복습 질문** (각자 본문 이해 내용을 토대로 요약하여 자필로 작성한 후, 몇 사람만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

- ①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②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 ③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를 가리켰으며 그 뜻은 무엇입니까?
- ④ 성도들이 연약해지지 않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다. 적용**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체적인 적용 실천 사항을 각자 적어봅시다.

## 2. 나눔팀별 모임

### (1) 한 주간 삶 나누기

### (2) 신앙고백 문답

- ①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 ②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 ③ 지난 한 주간 나 자신은 어떤 아는 죄들을 범했으며,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 ④ 죄를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음을 믿습니까?

“주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 적용과 기도제목 나누기 (영성 G.B.S 시간에 적용란에 적은 내용과 기도제목을 서로 나누기)

& 팀원들의 기도제목

1. 수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 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4.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6.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1. A few days later, when Jesus again entered Capernaum, the people heard that he had come home.
2. So many gathered that there was no room left, not even outside the door, and he preached the word to them.
3. Some men came, bringing to him a paralytic, carried by four of them.
4. Since they could not get him to Jesus because of the crowd, they made an opening in the roof above Jesus and, after digging through it, lowered the mat the paralyzed man was lying on.
5.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to the paralytic, "Son, your sins are forgiven."
6. Now some teachers of the law were sitting there, thinking to themselves,

## Commentary

①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치유 사건과 다른 독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곧 병자를 치유하시기 이전에 그 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이다(5절).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죄의 문제이며, 자신이 세상에 임하신 것은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과, 또한 친히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지닌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다.

②결국, 예수님께서서는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의 육신적 질병을 치유하기보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③회개함으로 먼저 해결받아야 할 나의 죄의 습성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이 치유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처럼, 내가 주님께로 데리고 가야할 영적으로 병든 주변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7.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  
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  
를 사하겠느냐
8.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  
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  
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  
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  
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7. "Why does this fellow talk like that? He's blaspheming!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lone?"

8. Immediately Jesus knew in his spirit that this was what they were thinking in their hearts, and he said to them, "Why are you thinking these things?"

9. Which is easier: to say to the paralytic, 'Your sins are forgiven,' or to say, 'Get up, take your mat and walk'?

10. But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He said to the paralytic,

11. "I tell you, get up, take your mat and go home."

12. He got up, took his mat and walked out in full view of them all. This amazed everyone and they praised God, saying, "We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3.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5.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13. Once again Jesus went out beside the lake. A large crowd came to him, and he began to teach them.

14. As he walked along, he saw Levi son of Alphaeus sitting at the tax collector's booth. "Follow me," Jesus told him, and Levi got up and followed him.

15. While Jesus was having dinner at Levi's house, many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eating with him and his disciples, for there were many who followed him.

## Commentary

①앞서 베드로를 포함한 4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바 있는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세리 레위(마태)를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 혹은 '매국노'로 낙인 찍혀 있었다. 그러므로 죄인 취급 받던 세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미천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함(17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②그 어떤 불의와 죄악에 빠져 있던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전혀 새롭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못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레위(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다.

③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를 품으신 것처럼, 오늘 내가 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레위(마태)는 많은 이권이 보장되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즉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모습은 무엇이며,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16.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6. When the teachers of the law who were Pharisees saw him eating with the "sinners" and tax collectors, they asked his disciples: "Why does he eat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17. On hearing this, Jesus said to them,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8. Now John's disciples and the Pharisees were fasting. Some people came and asked Jesus, "How is it that John's disciples and the disciples of the Pharisees are fasting, but yours are not?"

19. Jesus answered, "How can the guests of the bridegroom fast while he is with them? They cannot, so long as they have him with them.

20. But the time will come when the bridegroom will be taken from them, and on that day they will fast.

## Commentary

①본문에는 일주일에 두 차례씩 규칙적으로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의 예를 들면서,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 묻고 있는 자들이 등장한다. 아마 그들은 금식이야말로 종교적 경건의 상징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경건치 못한 부류의 사람들로 매도하려는 의도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들의 비난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의 비유'(19~20절), '생베 조각의 비유'(21절),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22절)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신은 구주이시며, 메시아가 도래한 새로운 시대의 윤리는 율법의 의무적인 준수에 국한 될수 없다는 보다 근본적인 진리를 보여 주셨다.

②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금식의 불필요성을 결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미 세상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누려야 할 희락에 찬 삶의 특성을 역설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③예수님을 비난한 자들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보여지는 것만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가?

21.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21. "No one sews a patch of unshrunk cloth on an old garment. If he does, the new piece will pull away from the old, making the tear worse.

22. And no one pours new wine into old wineskins. If he does, the wine will burst the skins, and both the wine and the wineskins will be ruined. No, he pours new wine into new wineskins."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23.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  
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  
니

24.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  
까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23. One Sabbath Jesus was going through the  
grainfields, and as his disciples walked along, they  
began to pick some heads of grain.

24. The Pharisees said to him, "Look, why are they  
doing what is unlawful on the Sabbath?"

25. He answered, "Have you never read what  
David did when he and his companions were  
hungry and in need?"

## Commentary

①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율법을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 정죄하였다. 하지만 율법에 언급된 안식일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구원과 안식에 대한 예표였으므로,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상,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외식주의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다.

②안식일에 안식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일도 안하고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날은 안식일의 주인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중심으로 지켜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써 행해야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③안식일 즉, 주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보내고 있는가? 또한,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고 있는가?

26.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27.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26. In the days of Abiathar the high priest, he entered the house of God and ate the consecrated bread, which is lawful only for priests to eat. And he also gave some to his companions."

27. Then he said to them,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not man for the Sabbath.

28. So the Son of Man is Lord even of the Sabbath."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2.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3.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나서라 하시고

1. Another time he went into the synagogue, and a man with a shriveled hand was there.

2. Some of them were looking for a reason to accuse Jesus, so they watched him closely to see if he would heal him on the Sabbath.

3. Jesus said to the man with the shriveled hand, "Stand up in front of everyone."

## Commentary

①본문은 앞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식일 논쟁이 또 다른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장에서는 제자들의 행위를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방어적 측면이 강하다면,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실증적으로 교훈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이를 통해 그들의 허위 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②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과연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 반문하셨고, 그들이 악을 행하며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위선자들의 입을 막으셨다.

③안식일 즉 주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주일마다 내가 섬기고 회생함으로 선을 행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주일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심방하며 기도하는 것에 나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4.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5.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6.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4. Then Jesus asked them, "Which is lawful on the Sabbath: to do good or to do evil, to save life or to kill?" But they remained silent.

5. He looked around at them in anger and, deeply distressed at their stubborn hearts, said to the man, "Stretch out your hand." He stretched it out, and his hand was completely restored.

6. Then the Pharisees went out and began to plot with the Herodians how they might kill Jesus.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8.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 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 가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9.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7. Jesus withdrew with his disciples to the lake, and a large crowd from Galilee followed.

8. When they heard all he was doing, many people came to him from Judea, Jerusalem, Idumea, and the regions across the Jordan and around Tyre and Sidon.

9. Because of the crowd he told his disciples to have a small boat ready for him, to keep the people from crowding him.

## Commentary

①본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신 것은 인간들의 비난과 방해를 두려워하셨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정하신 때가 되자 십자가 구속을 이루실 고난 주간에는 스스로 자원하여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신 것을 알수가 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시기를 원하셨음을 알수 있다.

②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를 지녀야 한다. 결코 지나치게 성급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너무 소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된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에 가장 합당한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③지금 내가 조금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때를 구하는 기도를 해 본적은 있는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자.

10.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다

11.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2.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10. For he had healed many, so that those with diseases were pushing forward to touch him.

11. Whenever the evil spirits saw him, they fell down before him and cried out, "You are the Son of God."

12. But he gave them strict orders not to tell who he was.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 1. 속별 모임 :

### (1) 아이스 브레이크(Ice Break)

속회원들과 함께 서로 어색한 분위기(Ice)를 깨뜨리기(Break) 위해 간단한 게임을 합니다.

### (2) 영성 G.B.S

#### 제11과 성령의 충만

암송구절 :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엡 5:18)

#### 가. 본문 이해

술 취함은 육체적인 것으로 방탕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은 영적인 것으로 힘 있는 신앙 생활을 하게 합니다. 성도는 방탕하게 하는 육적 요인은 절제하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 ① 술 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방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방탕이란 저축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사치란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술은 정신 상태를 둔하게 하므로 건전한 판단을 못하게 하고 육체적인 자극으로 악하고 부도덕한 쾌락으로 방탕에 이르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아야 하고 술을 절제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 ②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인치심(1:13)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시는 것이며, 성령의 충만이란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였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였으나 충만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마귀 시험도 이기며(눅4:10이하), 능력있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육체를 방탕케 하는 것을 절제해야 하고, 매일 매일의 생활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 복습 질문** (각자 본문 이해 내용을 토대로 요약하여 자필로 작성한 후, 몇 사람만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

- ① 술 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② 방탕하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 ③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 ④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 적용**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체적인 적용 실천 사항을 각자 적어봅시다.

## 2. 나눔팀별 모임

### (1) 한 주간 삶 나누기

### (2) 신앙고백 문답

- ①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 ②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 ③ 지난 한 주간 나 자신은 어떤 아는 죄들을 범했으며,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 ④ 죄를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음을 믿습니까?

“주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 적용과 기도제목 나누기 (영성 G.B.S 시간에 적용란에 적은 내용과 기도제목을 서로 나누기)

& 팀원들의 기도제목

13.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4.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16. 이 열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13. Jesus went up on a mountainside and called to him those he wanted, and they came to him.

14. He appointed twelve -- designating them apostles -- that they might be with him and that he might send them out to preach

15. and to have authority to drive out demons.

16. These are the twelve he appointed: Simon (to whom he gave the name Peter);

## Commentary

①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자신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뽑아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신 후에 천국 복음의 전파를 위해 이스라엘 각처로 파송하신다. 본문에 언급된 12제자의 명단을 살펴보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재능과 인품의 소유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본서의 기록자 마가는 예수님의 선택 기준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13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②하나님께서서는 세상적으로 뛰어난 경력과 지식의 소유자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기보다, 비록 남들보다 부족하고 비천할지라도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자세를 지닌 자들을 택하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훈련시킨 후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

③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서술 할 때 꼭 가롯 유다의 이름 끝엔 "예수를 판 자" 라는 꼬리표가 달린다. 주님을 따르는 나의 이름엔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는가?

17.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뢰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18.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대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19.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17.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to them he gave the name Boanerges, which means Sons of Thunder);

18. Andrew, Philip, Bartholomew, Matthew, Thomas, James son of Alphaeus, Thaddaeus, Simon the Zealot

19. and Judas Iscariot, who betrayed him.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20.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22.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  
세불이 지폄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23.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  
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5.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0. Then Jesus entered a house, and again a crowd gathered, so that he and his disciples were not even able to eat.

21. When his family heard about this, they went to take charge of him, for they said, "He is out of his mind."

22.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ho came down from Jerusalem said, "He is possessed by Beelzebub! By the prince of demons he is driving out demons."

23. So Jesus called them and spoke to them in parables: "How can Satan drive out Satan?"

24. If a kingdom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kingdom cannot stand.

25. If a house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house cannot stand.

## Commentary

①예수님을 비난해오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귀신들려 눈 멀고 병어리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적이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라고 모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이적이 결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신다.

②예수님 안에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 이처럼 유독 성령 모독죄만은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진정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거부하는 것이 참회와 중생에 이르는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즉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결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③예수님의 이적을 바알세불의 능력이라고 모함한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하지는 않은가?

26.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27.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30.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26. And if Satan opposes himself and is divided, he cannot stand; his end has come.

27. In fact, no one can enter a strong man's house and carry off his possessions unless he first ties up the strong man. Then he can rob his house.

28. I tell you the truth, all the sins and blasphemies of men will be forgiven them.

29. But whoever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ever be forgiven; he is guilty of an eternal sin."

30. He said this because they were saying, "He has an evil spirit."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31.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  
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1. Then Jesus' mother and brothers arrived.  
Standing outside, they sent someone in to call him.

32. A crowd was sitting around him, and they told  
him, "Your mother and brothers are outside looking  
for you."

33. "Who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he  
asked.

## Commentary

①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전해지자, 나사렛으로부터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들이 찾아왔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고향 나사렛으로 데리고 가려는 의도를 지녔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비록 혈연에 대한 사랑과 염려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처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 분주하시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행위였다.

②본문의 내용은 마치 예수님께서 혈연적 가족 관계를 무시하신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들기 쉬우나, 실제로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상에서도 육신적 모친 마리아에 대한 염려와 배려를 잊지 않으신 분이시다. 이는 혈연 관계를 벗어나 영적 가족개념을 지니도록 강조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③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 라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인가? 혹시 영적인 문제아는 아닌가?

34.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34. Then he looked at those seated in a circle around him and said,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35. Whoever does God's will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2.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3.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5.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1. Again Jesus began to teach by the lake. The crowd that gathered around him was so large that he got into a boat and sat in it out on the lake, while all the people were along the shore at the water's edge.
2. He taught them many things by parables, and in his teaching said:
3. "Listen! 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4. As he was scattering the seed, some fell along the path, and the birds came and ate it up.
5. Some fell on rocky places, where it did not have much soil. It sprang up quickly, because the soil was shallow.

## Commentary

- ①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여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주님의 권세있는 가르침과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 회개할 줄 모르는 당시의 사람들 때문이었다.
- ② 이 비유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4종류의 사람에 대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양분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 ③ 당시에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학자나 고위관리들은 교만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나 자신은 어떠한가? 늘 겸손함으로 강단에서의 설교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가?

6.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9.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6. But when the sun came up, the plants were scorched, and they withered because they had no root.

7. Other seed fell among thorns, which grew up and choked the plants, so that they did not bear grain.

8. Still other seed fell on good soil. It came up, grew and produced a crop, multiplying thirty, sixty, or even a hundred times."

9. Then Jesus said,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0.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11.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12.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13.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14.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5. 말씀이 길 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10. When he was alone, the Twelve and the others around him asked him about the parables.

11. He told them,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God has been given to you. But to those on the outside everything is said in parables

12. so that, "they may be ever seeing but never perceiving, and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otherwise they might turn and be forgiven!"

13. Then Jesus said to them, "Don't you understand this parable? How then will you understand any parable?"

14. The farmer sows the word.

15. Some people are like seed along the path, where the word is sown. As soon as they hear it, Satan comes and takes away the word that was sown in them.

## Commentary

①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신의 신앙을 깊이 뿌리내려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여 복음을 받되 피상적으로 받는다면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어,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 금방 믿음을 포기하고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다.

②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자가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없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③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자인가? 나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복된 눈과 귀인가?

16.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18.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20.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16. Others, like seed sown on rocky places, hear the word and at once receive it with joy.
17. But since they have no root, they last only a short time. When trouble or persecution comes because of the word, they quickly fall away.
18. Still others, like seed sown among thorns, hear the word;
19. but the worries of this life, the deceitfulness of wealth and the desires for other things come in and choke the word, making it unfruitful.
20. Others, like seed sown on good soil, hear the word, accept it, and produce a crop -- thirty, sixty or even a hundred times what was sown."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21.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22.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3.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1. He said to them, "Do you bring in a lamp to put it under a bowl or a bed? Instead, don't you put it on its stand?"

22. For whatever is hidden is meant to be disclosed, and whatever is concealed is meant to be brought out into the open.

23. If anyone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 Commentary

①본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등불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세상의 죄악과 어둠을 물리치는 적극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성도들은 그 자신이 의롭고 거룩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됨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②또한 본 비유 후반부(24, 25절)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헤아리는 자들(유대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 즉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복음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되며 결국 선민으로서의 지위조차 상실하게 됨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③내가 속한 학교, 직장, 가정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밝히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혹,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속에 파묻혀 빛을 잃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24.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5.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24. "Consider carefully what you hear," he continued.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 and even more.

25. Whoever has will be given more;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from him."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 1. 속별 모임 :

### (1) 아이스 브레이크(Ice Break)

속회원들과 함께 서로 어색한 분위기(Ice)를 깨뜨리기(Break) 위해 간단한 게임을 합니다.

### (2) 영성 G.B.S

#### 제12과 성령의 은사

암송구절 :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에 나눠 주시느니라 (고전12:11)

#### 가. 본문 이해

은혜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데, 누가 주시며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가를 바로 알아 그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 ① 이 모든 일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4~10절)

9가지 은사의 내용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활동면에서 그 양상이 나타납니다. 대상에 따라 하는 일도 다릅니다. 9가지 은사는 고린도 교회를 위함이며,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도 각각 다르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다양성을 통해 조화되므로 한 성령을 통하여 풍부한 일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은사, 직임, 역사도 여러가지나 성령, 주,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4~6절). 목적은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7절).

#### ② 은사는 누가 주시며 어떤 방법으로 주십니까?

a.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 한 성령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은사의 수가 많고 그 형태가 다양하지만 한 성령이 내부 깊숙히 하나로 지배하고 능력과 권능으로 활동하십니다.

b. 어떤 방법으로 주십니까 :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뜻대로는 성령의 재량권을 의미합니다. 불평도 제거하고 자랑도 없애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때는 특성을 감안해서 그 사람에게 맞도록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서 감사하고 주신 목적을 이룸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복습 질문** (각자 본문 이해 내용을 토대로 요약하여 자필로 작성한 후, 몇 사람만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

- ① 이 모든 일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 ② 9가지 은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③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 ④ 은사를 어떤 방법으로 주십니까?

**다. 적용**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체적인 적용 실천 사항을 각자 적어봅시다.

## 2. 나눔팀별 모임

### (1) 한 주간 삶 나누기

### (2) 신앙고백 문답

- ①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 ②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 ③ 지난 한 주간 나 자신은 어떤 아는 죄들을 범했으며,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 ④ 죄를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음을 믿습니까?

“주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 적용과 기도제목 나누기 (영성 GBS 시간에 적용란에 적은 내용과 기도제목을 서로 나누기)

& 팀원들의 기도제목

26. ○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나라

28.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30. ○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26. He also said, "This is what the kingdom of God is like. A man scatters seed on the ground.

27. Night and day, whether he sleeps or gets up, the seed sprouts and grows, though he does not know how.

28. All by itself the soil produces grain -- first the stalk, then the head, then the full kernel in the head.

29. As soon as the grain is ripe, he puts the sickle to it, because the harvest has come."

30. Again he said, "What shall we say the kingdom of God is like, or what parable shall we use to describe it?"

## Commentary

①본 비유내용들은 천국을 비유하는 것들로서 26~29절은 씨앗 비유이며, 30~32절은 겨자씨 비유이다.

씨앗 비유에서 '씨'는 복음을, '땅'은 이 세상을 가리킨다. 씨앗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씨앗이 땅에 떨어져 점차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세상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엄청난 확장과 성장을 거듭하여 마침내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②겨자씨 비유는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마침내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미미하게 시작된 천국이 외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을 보여 준다.

③나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으며,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가? 복음의 씨앗인가? 아니면 세상 욕심인가?

31.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33.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31. It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is the smallest seed you plant in the ground.

32. Yet when planted, it grows and becomes the largest of all garden plants, with such big branches that the birds of the air can perch in its shade."

33. With many similar parables Jesus spoke the word to them, as much as they could understand.

34. He did not say anything to them without using a parable. But when he was alone with his own disciples, he explained everything.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35.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5. That day when evening came, he said to his disciples, "Let us go over to the other side."

36. Leaving the crowd behind, they took him along, just as he was, in the boat. There were also other boats with him.

37. A furious squall came up, and the waves broke over the boat, so that it was nearly swamped.

38. Jesus was in the stern, sleeping on a cushion. The disciples woke him and said to him, "Teacher, don't you care if we drown?"

## Commentary

①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거듭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 앞에서 극단적인 공포에 휩싸인 제자들의 모습은 잔적으로 그들의 불신앙을 폭로하고 있다. 물론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제자들의 과거 경험 이 풍랑에 대한 본능적 공포를 불러 일으켰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만유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안전은 보장된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이다.

②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도 금방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훈계하셨다. 나 자신도 제자들처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종종 경험하고도 일단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기보다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두려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었겠는가?

39.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39. He got up, rebuked the wind and said to the waves, "Quiet! Be still!" Then the wind died down and it was completely calm.

40. He said to his disciples, "Why are you so afraid? Do you still have no faith?"

41. They were terrified and asked each other, "Who is this? Even the wind and the waves obey him!"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3.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자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8.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9.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나 이르되 네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10.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1.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 They went across the lake to the region of the Gerasenes.
2. When Jesus got out of the boat, a man with an evil spirit came from the tombs to meet him.
3. This man lived in the tombs, and no one could bind him any more, not even with a chain.
4. For he had often been chained hand and foot, but he tore the chains apart and broke the irons on his feet. No one was strong enough to subdue him.
5. Night and day among the tombs and in the hills he would cry out and cut himself with stones.
6. When he saw Jesus from a distance, he ran and fell on his knees in front of him.
7. He shouted at the top of his voice, "What do you want with me,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 Swear to God that you won't torture me!"
8. For Jesus had said to him, "Come out of this man, you evil spirit!"
9. Then Jesus asked him,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Legion," he replied, "for we are many."
10. And he begged Jesus again and again not to send them out of the area.
11. A large herd of pigs was feeding on the nearby hillside.

## Commentary

①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위치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의 고랑에 묶여 무덤 사이에서 지낼 수 밖에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의 우리 역시 어둠과 죄악의 종이 되어 신음하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친히 인간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복음 증거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다.

②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비참한 처지의 귀신들린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 군대 귀신으로 하여금 근처의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공훈과 사랑과는 정반대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재물의 손실을 한 영혼의 실족보다 더 안타깝게 여긴 채 그러한 예수님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③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는 얼마나 희생하고 힘쓰고 있는가? 손실만을 따지며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12.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14.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15.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켰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6.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17.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카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12. The demons begged Jesus, "Send us among the pigs; allow us to go into them."
13. He gave them permission, and the evil spirits came out and went into the pigs. The herd, about two thousand in number, rushed down the steep bank into the lake and were drowned.
14. Those tending the pigs ran off and reported this in the town and countryside, and the people went out to see what had happened.
15. When they came to Jesus, they saw the man who had been possessed by the legion of demons, sitting there, dressed and in his right mind; and they were afraid.
16. Those who had seen it told the people what had happened to the demon-possessed man -- and told about the pigs as well.
17. Then the people began to plead with Jesus to leave their region.
18. As Jesus was getting into the boat, the man who had been demon-possessed begged to go with him.
19. Jesus did not let him, but said, "Go home to your family and tell them how much the Lord has done for you, and how he has had mercy on you."
20. So the man went away and began to tell in the Decapolis how much Jesus had done for him. And all the people were amazed.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21.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2.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아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23.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4.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25.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26.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1. When Jesus had again crossed over by boat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a large crowd gathered around him while he was by the lake.

22. Then one of the synagogue rulers, named Jairus, came there. Seeing Jesus, he fell at his feet

23. and pleaded earnestly with him, "My little daughter is dying. Please come and put your hands on her so that she will be healed and live."

24. So Jesus went with him. A large crowd followed and pressed around him.

25. And a woman was there who had bee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26. She had suffered a great deal under the care of many doctors and had spent all she had, yet instead of getting better she grew worse.

27. When she heard about Jesus, she came up behind him in the crowd and touched his cloak,

## Commentary

①본문에는 회당장 아이로라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음을 예수님께 아뢰며 살려주실 것은 필사적으로 간청하는 사건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회당장 아이로는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자존심을 버리고 믿음과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열두해 동안 병마에 시달리면서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허비하며 많은 의원들을 찾아 다녔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오히려 병만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 받고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이므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고 의뢰해야 한다.

③아직도 내가 해결하려고 쥐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주님께 맡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리라
29.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32.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33.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주니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간 강할지어다

28. because she thought, "If I just touch his clothes, I will be healed."
29. Immediately her bleeding stopped and she felt in her body that she was freed from her suffering.
30. At once Jesus realized that power had gone out from him. He turned around in the crowd and asked, "Who touched my clothes?"
31. "You see the people crowding against you," his disciples answered, "and yet you can ask, 'Who touched me?'"
32. But Jesus kept looking around to see who had done it.
33. Then the woman, knowing what had happened to her, came and fell at his feet and, trembling with fear, told him the whole truth.
34.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and be freed from your suffering."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35.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하
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7.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8.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35. While Jesus was still speaking, some men came from the house of Jairus, the synagogue ruler. "Your daughter is dead," they said. "Why bother the teacher any more?"
36. Ignoring what they said, Jesus told the synagogue ruler, "Don't be afraid; just believe."
37. He did not let anyone follow him except Peter, James and John the brother of James.
38. When they came to the home of the synagogue ruler, Jesus saw a commotion, with people crying and wailing loudly.
39. He went in and said to them, "Why all this commotion and wailing? The child is not dead but asleep."

## Commentary

①앞서 회당장 아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는 간청을 받은 예수님은 이제 회당장의 집에 가서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다. 예수님은 친히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꿈'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아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②예수님께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39절) 말씀하신 이유는 실제로 죽지 않고 기절 상태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잠시 후에 소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즉 예수님 앞에서 인간의 육체적 죽음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며, 지극히 잠시 잠깐의 잠과 같은 것에 불과함을 상기시키신 것이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심과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는 의미를 가진다.

③생명의 근원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 내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영적인 모든 부분에 대하여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40.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41.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43.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40. But they laughed at him. After he put them all out, he took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and the disciples who were with him, and went in where the child was.

41. He took her by the hand and said to her, "Talitha koum!" (which means, "Little girl, I say to you, get up!").

42. Immediately the girl stood up and walked around (she was twelve years old). At this they were completely astonished.

43. He gave strict orders not to let anyone know about this, and told them to give her something to eat.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1.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2.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나

3.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1. Jesus left there and went to his hometown, accompanied by his disciples.

2. When the Sabbath came, he began to teach in the synagogue, and many who heard him were amazed. "Where did this man get these things?" they asked. "What's this wisdom that has been given him, that he even does miracles!

3. Isn't this the carpenter? Isn't this Mary's son and the brother of James, Joseph, Judas and Simon? Aren't his sisters here with us?" And they took offense at him.

## Commentary

①예수님께서서는 이제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잠시 돌아가셨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왕적 권능을 드러내신 일들에 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했다. 아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들과 함께 지냈던 때의 육신적 모습만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이미 공생애 사역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과 왕적 권능 그리고 신성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불신앙을 인하여 고향 나사렛에서 구태여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

②나의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 예수님의 능력과 행하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왕권과 권능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자.

4.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5.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4. Jesus said to them, "Only in his hometown, among his relatives and in his own house is a prophet without honor."

5. He could not do any miracles there, except lay his hands on a few sick people and heal them.

6. And he was amazed at their lack of faith. Then Jesus went around teaching from village to village.

## Applicat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금란청년

“매일 주와 함께”

Daily With God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시편119:9)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way pure?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Psalms119:9)

본 권은 금란 청년들의 영성 생활의 성장을 위하여 금란교회 청년회에서 자체 제작한 것입니다.

#### 1. 발행 개요

- ① 발행처 : 금란청년회
- ② 발행일 : 2013년 3월1일
- ③ 디자인 : 표지 (김완석), 내지 (정재상)
- ④ 편 집 : 오성범

#### 2. 참고 및 인용 문헌

- ① 성 경 : 개혁 개정 한글 성경, NIV 영어성경, C3TV온라인 성경
- ② 주 석 : 그랜드 종합 주석 (제자원 / 성서 아카데미), 카리스마 종합 주석 (기독지혜사)



2013년 표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며 살자**”

- 사랑을 고백하며 나누는 금란청년 -



◀ **청년회 예배 시간 & 장소** ▶

요일별 구분	시간	장소	
● 주일 대예배	2~4청년회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5층 각 팀별 지정석
	1청년회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본당 3층 중앙 뒷편 지정석
● 주일 속회모임	2~4청년회	주일 3부예배 후(오후 1:00)	본당 8층 ~ 10층
	1청년회	주일 4부예배 후(오후 3:00)	본당 1001호
● 토요 찬양예배	토요일 (오후 7:00)	본당 9층 비전홀	
● 정기 심야기도회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9:00)	교육관 지하기도실	